



서울대 소장품 감상하기 :예술을 중심으로



김종영,

1968년 作「work 68-1」



김종영, 1968년 作 「work 68-1」



■ 작가 김종영

- 서예를 통해 예술계 입문
- 이후 조각가의 길로 들어섬
- 이전에는 사실적인 구상조각을 제작
- 이후에는 유기적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에 관심
- 재료 자체의 속성과 본질 표현에 집중한 것이 특징
-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



김종영, 1968년 作 「work 68-1」



■ work 68-1

- 선의 구조와 리듬, 형태의 채움과 비움을 담음
- 상단부의 각진 선과 부드러운 모서리의 대조
- 날선 빛과 따뜻한 색감의 조화
- 재료 본연의 미(美)를 잘 살리고자 한 태도가 담겨 있음



신미경,

2006년 作「Translation-Vase(항아리)」



신미경, 2006년 作 「Translation-Vase(항아리)」



■ 작가 신미경

- 비누를 이용한 문화 번역의 과정을 다룸
- 유학 중 문화의 이동과 전이 과정의 ‘오역(誤譯)’에 주목
- 작품의 의도와 해석 사이의 간극을 포함
- 오역은 표면과 재료, 제작 과정 전반에서 나타남
- 사물이 옮겨지는 과정의 오역과 재맥락화 과정을 재현
- 대리석상 복제에 집중한 초창기를 지나, 원작과 복제물 사이의 거리감 구현
- 무른 것으로 단단한 재료를 대신, 비누향으로 간극을 부각
- 2006년 이후 중국 도자기 재현, 백자와 청자의 색채 변주 등 시도



신미경, 2006년 作 「Translation-Vase(항아리)」



■ Translation-Vase(항아리)

- 도자기의 거푸집 안에 비누를 흘려 넣어 만든 작품
- 도자기의 견고함과 달리 일시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줌



최의순,
1996년 作「빛」



최의순, 1996년 作 「빛」



■ 작가 최의순

- 1955년,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를 통해 등단
- 서울대 재학 시절 성당 조각과 예술품 제작
-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시 기념 메달 제작
- 1985년 이후 명동성당 청동부조 제작,
- 2020년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 수상
- 추상적 형태로 조각의 본질을 사유함
- 석고 조각 속 빛과 공간의 미에 대한 탐구가 두드러짐
- 작가의 손길과 움직임이 잘 담아내는 석고 조각
- 1996년 작 '빛'에서도 작가의 작업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남



최의순, 1996년 作 「빛」



■ 빛

- 불룩한 상반부와 연약한 지시체의 대조로 긴장감 구사
- 불룩한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얇은 두께
- 작품의 빛깔과 곡선으로 빛이 표현됨



윤명로,
1976년 作「균열」



윤명로, 1976년 作「균열」



■ 작가 윤명로

- 대학 재학 시절 대한 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특선 수상
- 전국 미술 전람회의 보수성에 반발
- 젊은 작가들과 함께 '60년 미술가 협회' 결성
- 앵포르멜- 물감의 물성과 붓의 역동성이 두드러지는 작업 위주로 활동
- 초기 작품의 표현적 제스처가 이후 작품의 안정된 구성으로 이어짐
- 1970년대 초반 '자아' 연작- 판화 기법의 성과가 담김



윤명로, 1976년 作「균열」



■ 균열

- 1975년 이후, 도형과 물감층이 만들어내는 표면 효과를 담은 ‘균열’ 연작
- 1970년대 단색조 추상의 경향
- 물감과 안료의 건조 과정에서 갈라지는 크랙 기법 시도
- 다른 층으로 칠해지는 물감이 균열을 발생시킴
- 물감의 물성에 대한 연구, 작가의 붓질 조정에 의해 결정됨
- 규칙적·반복적 크랙이 화면 전체를 채움



하인두,
1968년 作「밀문」



하인두, 1968년 作 「밀문」



■ 작가 하인두

- 한국 앵포르멜 미술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작가
- 1960년대: 비통한 인체 묘사
- 1960년대 말: 옵티컬한 구성
- 1970년대: 강렬한 색조 패턴 위주의 작업



하인두, 1968년 作 「밀문」



■ 밀문

- 추상 조형언어 안에 한국 적 요소를 담음
- ‘만다라’, ‘혼불’은 생명과 불교에 관한 작품
- 원효사상의 ‘묘계환중’ 추구,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구현
- 특유의 푸른 색조로 그린 ‘밀문’
- 반복적 푸른 사선의 격자가 특징
- 사찰의 문을 연상시키는 기하학 패턴
- ‘문 밖의 깨달음’이라는 선(禪)’ 사상의 상징